

한국건축의 傳統樣式繼承

한 창 진 (한정건축대표)

한국건축의 傳統樣式繼承

傳統論은 여러方向으로 오랜 論難을 벌려왔고 심지어 近代化過程과 傳統文化 그리고 傳統文化와 그繼承에 대해서도 많은 論議의 機會를 가졌고 그것이 紙上으로 發表도 되어왔다. (※ 특히 '75 건축Seminar 및 空間誌 5월호 참조)

歷史에 대한 定義가 如前히 複合的이듯이 傳統에 대한 그것도 갖가지 觀点이나 그 理論 展開에서 多樣한 內容과 表現이 주어질 수 있기때문에 이것역시 相對的이고 複合的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時点에서 여러가지 進歩와 發展이 되풀이되어온 歷史上的 時代가 갖는 與件이나 狀況 그리고 하나의 宿命的이라고도 할수있는 蓋然的 結果에 대해서 더 많은 關心과 注意를 기울여야할것이고 過去에서 未來로 連結되어가는 過程에서의 現代가 어떻게 必要해야 한다는 意味로서의 傳統繼承이라는 命題를 생각해나가야 될줄안다.

우리가 흔히 傳統은 “變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保守的 觀念의 오류에서 벗어나지못하는데서 우리 傳統繼承에 問題點이 있는것도 分明하다.

하나의 經驗이 있고 그것을 踏襲 또는 再現하면 된다는것은 가장 쉬운 方法일 수 있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安全하고 安逸하게만 이끌어 주는것. 그래서 踏歩와 mannelism에서 끝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只今 우리의 現實이 바로 여기에 그 盲點을 지니고 있는 것일게다.

傳統이란 過去에 이루어져서 永久히 靜止된것으로 잘못 알고 우리 傳統의 繼承이란 바로 그것을 再現하면 되는 것으로 誤認하는데서 빚어지는 悲劇과 喜劇이 있다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過激한 말로 심지어 政治家들이나 行政府까지도 그러한 喜劇을 演出한적이 있었고 거기에 適合한 건축가가 총대를 맨 悲劇도 엄연히 있다.

傳統은 變하는것이고 發展하는것이다. 決코 過去에 이루어져서 靜止된것이 아니고 動的인 것이며 社會의 發展과(近代化)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傳統文化와 近代化라는 意味가 서로 對立하는것이 아니라 重要한것은 때로 退化된 傳統的 要素와 外形의 外來要素는 社會의 타락과 混亂을 招來할 수 있기 때문에 不必要한 要素는 버리고 必要한것만 受容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傳統的인것과 外來的인 것의 融和에서 새로운 傳統이 形成發展되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은 外來的인것에 隨伴되는 不必要한것, 우리에게 맞지않는것을 除去하는 것과 傳統文化中에서 退化된 것, 고질화된것, 前近代의인것들을 과감히 바꾸고 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傳統的인것은 無條件 다 좋고 保存해야한다는 그릇된 생각도 버려야하고 同時에 새로운것은 다 좋다는 偏見도 없어야함은 勿論이다.

傳統樣式繼承이란말은 우리의 傳統文化속에서 繼續 지녀야할 그리고 끊임없이 發展시켜야할 傳統樣式的 繼承이라는 뜻이다.

죽은것 다시 살려내서 復活시킬 價值가 없는것 前近代의인것들이 과감히 排除되고난 狀態가 前提가 되어있어야 함은 勿論 發展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要素의 綜合이라는 前提가 있어야만 繼承이라는 뜻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主体性은 過去에 있었던 것에서 찾으려기보다 現代에 對處하는데 또는 未來를 構成하는데서 作用해야 할 것이며 主体性있는 分析, 伴斷, 計劃, 實踐 여기에 우리가 必要로하는 近代化가 있고 그過程에서 傳統의 要地가 必要로 되는 것일게다.

古建築의 反現. 그것은 一種의 文化財의 再現이다. 文化

財라는것은 過去에 있었던것 그후의 歷史에 있어서 發展이 끊어진것이며 죽은것이다.

그것은 오직 文化財로서만의 意義를 갖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있는 “人間文化財”란 그런 意味로서는 尙當한 稱呼가 아닌것으로 여겨지며 綿綿히 傳承되어온 하나의 價値를 지금껏 溫古해 왔고 그것을 우리가 새삼 發掘해서 이어나가야할 必要와 發展시켜나가야할 祖上들의 印記라고 한다면 마땅히 “傳統繼承者”라야 옳을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따지기는 쉬워도 事實上 傳統文化 乃至 傳統樣式이란 그自体가 曖昧모호할뿐아니라 그限界역시 不分明한데에 어려움이 있고 크게 世界를 통털어 人類文化史의인 觀點에서는 棼雜한 몇줄기의 흐름으로 整理될 수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中國의(台北)故宮博物館에서 하루를 지켜보고난 다음 分間할 수 없는 類似性에 首肯이 가고 어찌면 우리 傳統文化의 原型을 찾아보는것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果然 우리의 固有의 土着文化속에서 오늘까지 傳承되고 作用되어오면서 끊임없이 닦고 가꾸어져서 우리에게 共感을 주고있는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가 必要로 하는 近代化過程에서 必要로 되는 傳統樣式의 要地란 무엇일까?

더구나 그것이 어떤 形態上으로나 表現上으로

民俗이나 純粹藝術等에서 지금껏 變化하고 作用되어오고있는 要地는 있다. 그러나 唯獨 傳統建築樣式에서 그要地를 찾지못하고 있다는것은 그나름대로의 要因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한다.

史蹟으로 文化財로 指定되고 있는 많은 寺刹建築, 城門, 宮殿建築이나 班家古屋들에서 웬지모르게 萎縮된 느낌, 가난한 느낌, 치근한 壓迫같은것을 받게되는것은 나만의 所致일까.

分明 祖上들의 呼吸을 느끼고 희미한 共感을 느끼기는 하지만 뭔가 더 크고 雄壯한 原型이 있어야 마땅할것 같은 그런 懷疑가 있다.

그리고 다른 많은 有形·無形의 文化財라고 일컫는 것들에서보다는 받아들여지는 애뜻한 土着性같은것이 희박하게 느껴지는것도 事實이다.

規模나 정교한 솜씨의 缺如나 一律의인 築造方式등 素朴 단박하다고 하면 그런대로의 表層的인 意味를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 建築傳統의 궁색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도 느낀다.

우리에게 不斷히 加해진 큰影響을 事大思想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模倣하면서 가난한대로 우리의 技倆껏 再現해본 모조같은 느낌, 自發의이고 繼續的인 生活活動에서 꾸준히 닦고 가꾸어진 흔적이 없는 一律性, 例로 들면 古宮들에서 보는 房들의 규모나 갖쓰고 出入하기에 딱했을 일각 문의 높이며 방문들—形式의 지나친 尊重인지 寬

대인지 事緣은 모르지만 그속에서 말없이 살아온 祖上들을 이해하기 어려울때가 있다.

우리가 單一民族으로서 存立해오면서 온갖 苦難과 수모로 엮어진 歷史的背景이나 地理의여건, 地勢나 風土의인 環境들로 미루어 充分히 우리 傳統建築樣式의 形成過程이 理解되기는 하지만 外來의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固有性의 바탕이 너무나 貧弱했지나 않나 外來文化에 作用할만한 自治的인 傳統의 바탕이 거의없었던것이 아닌지 疑心할때가 있다.

그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適用되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淸貧과 孤高에 自適해가며 安分知足, 술과 風流로 自然과 形而上學을 떠돌다간 祖上들의 집은 “草家三間”이며 꽃이나 나무나 잔디가 아니라 “달”과 山水를 造景으로 삼은 그心境과 “얼”을 建築傳統의 內的表象으로 삼는것이 더 實感있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오늘 conc, shell 구조로 草家지붕을 만들고 전통건축양식이라고 할 수가 없듯이 불란서 大使館을 傳統建築樣式의 試圖라고 하는데는 역시 懷疑가 있다.

至極히 部分的인 要因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結論은 너무나 오랜동안 작은 울타리속에 갇혀살면서 壓迫과 가난을 지탱하느라 건축은 가장 外面當한 傳統樣式中的 하나로 볼수있고 많은 단계를 빠뜨린 空白, 即 近代化의 過程的인 受容이나 變化가 斷絶된 狀態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넘겨진 當或이 아닌가싶다.

오늘과 같이 모든 狀況이 急Tempo로 엄청난 變化를 가져다주고 科學은 모든 既存概念을 뒤집어 엎어놓았고 우리들 사이에 共通語를 잃게하고 있는데. 그리고 감당이 어려울정도의 外來的 近代化 물결과 直面하고 있고 너무 나도 많은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수없는 狀況에 놓여있는것을안다.

그래서 지금을 混沌의 時代, 우리 傳統文化의 危機라고들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 性急하고 悲觀的으로 생각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盲目的으로 外來的 近代化물결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조심스럽게 골라서 우리에게 맞는것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간 異質的으로 받아들여지거나 過程上의 施行錯誤는 免할수 없을런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바람직하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고 우리의 口味가 바뀌어지질않고 있는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슬기나 “얼”은 傳해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핏줄속에 숨쉬어 살아있는 以上 肯定的일수 있다.

APARTMENT 住居樣式이 우리 生活에 適用되어온것이 언제부터인가, 그속에서의 生活경험이 그內容을 바꿔갈 것이다.

口樂代身에 Jazz音樂이 판을 치고 있지않은것처럼 온 들대신 침대로 바뀌고 있는것만은 아니다.

逆說적으로 우리가 必要로하는 外來의近代化의 올바른 導入과 追적으로 傳統樣式의 再發見이나 近代化 過程에서 必要로되는 傳統樣式의 素地가 더쉽게 얻어 질지도 모른다. 우리 傳統에 對한 꾸준한 關心과 조용한 觀照에서 그리고 近代化에 對한 不斷한 工夫와 努力에서 또는 純粹藝術에서와 같이 傳統과 外來化의 融合과 綜合이

참된 昇華를 이루어 나갈때 우리 建築의 可能性의 실마리 도 풀려 나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건축傳統樣式의 發見과 繼承이란 課題는 우선 外形的인 可視傳統樣式에서가 아니라 内部的인 深層 傳統의 次元에서 期待를 걸어 봄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 다.

에너지 節約運動展開

1. 節電의 必要性

水力發展을 爲한 水資原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主로 火力發展에 依存하고 있으며 火力發展의 燃料는 抽類를 使用하고 있는바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莫大한 外貨를 들여 輸入하고 있어 節電의 必要性이 절 실히 要求되고 있음.

76年度 發電燃料 消費量

燃料의 種類	消費量	換算量
방카 C 油	2千4百萬드림	드림을이으면 서울~釜山間30回 往復距離
디젤 油	23萬드림	드림을이으면 서울~大邱間 距離
無煙炭	3億2千7百萬個	

○初저녁 電力使用의 抑制

밤 6시 - 9時 사이에 集中的으로 電氣를 使用함으로써 平均電力과 最大電力의 差는 約90KW에 達하여 이90W KW級 發電所 3個를 建設해야되며 이에 所要되는 建設費는 約1千8百億원 (KW費20萬원)으로 推定되고 있어 電氣料金中에는 發電所 建設費가 包含되고 있어 初저녁 에 電氣를 덜쓰면 發電所建設의 必要性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電氣料金 引上要因이 줄어드는 것임.

節電要領

○事務室 節電

- (1) 標準照度以上 電氣除去
- (2) 夜間消煙嚴守
- (3) 電熱器使用禁止
- (4) 夜間作業室統合
- (5) 每 6 燈마다 電燈點滅裝置
- (6) 照明燈의 清掃를 자주하여 充分한 照度を 維持하도록 한다.
- (7) 光源과 冊系間의 距離를 2m以內로 調節하여 不必要한 電力浪費防止

○一般家庭節電

- (1) 한집에서 60W 한燈을 끄면 1년에 約 5,400원을 節約할 수 있으며 全國적으로 約200億원이 節約됨
- (2) 結果적으로 766,500드림의 油類가 節約되고 24kw 施設用量的 發電所 建設費 4百80億원을 節約할 수 있다.